

전남 청년 작가들 날개를 펴다



왼쪽부터 이아름, 김수지, 김엽, 송환규, 장윤경 작가와 이지민 전남문화재단 담당.

지난해 화순 도곡면에 문을 연 '소소미술관'(관장 김봉석)은 한적한 시골에 자리 잡은 소박한 문화공간이다. 지난 24일, 'Emerging Artist'전(12월 8일까지) 개막 행사가 열린 미술관은 활기가 넘쳤다.

이번 전시에는 김수지(전통예술), 김엽(회화), 송환규(미디어아트), 이아름(웹툰), 장윤경(한국화)씨 등 청년작가 5명이 참여했다.

그들에게 예술가로서의 날개를 달아준 전남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한 '청년 예술가 육성 지원 사업'이었다. 지역 문화 활성화와 함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 차원에서 기획된 이번 사업은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배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멘토 컨설팅을 진행했다. 미디어 아티스트 전시영,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오병희, 전혁림미술관장 전영근씨 등이 청년 작가들과 멘토·멘티가 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5명의 작가들은 지난 10월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한차례 지원 사업 결과 보고전을 가졌다. 재단의 당초 계획은 보고전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소미술관 김봉석 관장이 젊은 작가들의 열정을 보고 다시 한번 전시 기회를 제

전남문화재단 청년 예술가 육성 지원
김수지·김엽·송환규·이아름·장윤경 작가
화순 소소미술관서 12월 8일까지 전시회
전시영·오병희·김주연 등
전문가들과 멘토·멘티 교육도

▶이아름 작가의 웹툰 '서른 세 번째 봄'



공했고, 작가들은 첫 전시보다 훨씬 많은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새롭게 예술의 길로 들어선 작가들은 저마다 사연들을 갖고 있고 그 사연들은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다.

예전에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김수지 작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늘상 마음에 두었던 철보 공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작가는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작은 세상은 작지만 큰 세계다.

'공존' 시리즈를 선보인 김엽 작가는 원래 작품 활동을 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몇년간 붓을 놓았었다. 다시 창작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일회용 접시 등을 소

재로 삼았다.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한없이 가벼워지는 인간 존재를 표현했다.

장윤경 작가는 분체의 매력에 빠졌다. 그녀가 지금껏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꼈던 우울한 감정을 어두운 색으로 표현했다. 색을 여러번 덧칠하는 분체를 통해 내면의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이아름 작가는 웹툰 'My 0호 Fan'로 이미 데뷔했다. 하지만 연재가 끝난 후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그러던 중 이번 사업을 통해 멘토로 고병준 웹툰작가를 소개 받았고 스토리 구성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었다. 전시작 '서른 세 번째 봄'은 주인공의 성장을 담은 100여

컷을 종이와 영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가장 막대한 송환규 작가는 전시장 벽면에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고 있다. 멘토 전시영 작가에게 작가로서의 마음가짐과 작품 제작 과정 등을 배운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숙함이 돋보인다. 이번에 출품한 '떠나지 못한 민들레'는 대안학교 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동갑인 세월호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가 느꼈을 고통 등을 표현했다.

김엽 작가는 "우리같이 기반이 없는 젊은 작가들은 작품활동을 시작할 때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 전시도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며 "다행히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을 알게 돼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지민 문화재단 담당은 "이번 사업은 신예작가들을 처음부터 육성하는 사업이라 얼마만큼의 결과물이 나올지 우려가 있었다"며 "막상 진행을 해보니 작가들이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정이 담긴 작품을 제작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더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061-375-19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강연규 작 '석류'

미술인들, 고려인마을 돕기 나섰다

오늘~12월 2일 메트로갤러리 '카레이스키와의 동행전' 열려

광주 고려인마을을 돕기 위해 광주 미술인들이 나섰다. 광주미술협회(회장 나상욱)가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메트로갤러리(금남로4가역)에서 '카레이스키와의 동행전'을 연다.

광주교통방송(본부장 장영주)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는 광주고려인마을을 돕기 위해 87점의 작품을 기부한 자선행사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산구청, 고려인마을 후원회 등이 뜻을 함께 했다.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된다. 판매 수익금은 고려인 마을 주민들의 생활

정착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참여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강연규, 김영태, 조규일, 황영성 등 지역 원로·중진 작가들이 참여했다.

광주 고려인마을(광산구 월곡동)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고려인 후손들이 비교적 취업여건이 좋은 하남·평동·소촌공단 등으로 몰리면서 월곡동 일원에 형성됐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공장 등에서 일하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 고려인은 2013년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제정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등록 고려인은 1400여 명이지만 미등록 고려인을 포함하면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백학조각회 '1986 ROAD'

조선대 조소과 동문들

29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조선대학교 조소과 동문들로 구성된 백학조각회(회장 이이남)가 '1986 ROAD'를 주제로 29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정기전을 개최한다.

주제 '1986 ROAD'는 지난 1986년 결성된 백학조각회가 걸어 왔던 '29년간의 길'을 의미한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이이남 회장을 비롯한 선배 작가들과 재학생 53명이 참여한 연합전시다. 작가들은 돌, 나무, 석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보여준다.

백학조각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점점 퇴색하고 있는 조소 장르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선배배간 예술적 소통을 할 예정이다. 평면 위주의 전통 미술시장에서 현대미술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조소의 역할과 조소에서 파생한 다양한 장르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15일에는 선배작가와 재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조소 장르의 부



김의수 작 '오래된 향기'

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학조각회 관계자는 "조소가 중요한 이유는 순수미술의 범주에서 중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매체의 제한점을 극복하는데 전환점을 제시한 장르이기 때문이다"며 "이번 전시는 조소에 뿌리를 둔 조선대 동문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24-66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멘델스존·브람스 선을 따라 '독일 기행'

광주시향 내일 정기 연주회

피아니스트 조재혁 협연

광주시향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현세)이 '독일 기행'을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연주회에서는 독일 출신 작곡가 멘델스존과 브람스의 곡을 만난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사진)씨가 협연하는 멘델스존의 '피아노협주곡 1번'은 화려한 기교와 낭만적 감성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줄리어드와 맨하튼 음대에서 공부한 후 북미와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조 씨는 국내 대학에서도 후학들을 가르쳐왔다. 특히 KBS 클래식 FM의 '장일범의 가정음악' 수요일 코너 '위드피아노'와 아리랑 라디오 음

악프로그램 'It Classic'의 'Jae-hyuck's Music Box' 코너를 맡아 진행하는 등 클래식 팬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피날레곡은 늦가을 11월 정취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중 하나인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이다. 쓸쓸하고 아련한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각 악장마다 다른 특징으로 듣는 이를 사로잡는 곡이다.

그밖에 바르톡의 '헝가리안 스케치'도 공연된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차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